

# 素 EMPTY MORPH

25 February 2021 – 3 April 2021

THE  
PAGE  
GALLERY

# THE PAGE PRESS GALLERY RELEASE

---

## CONTACT

이은주 디렉터 eunju@thepage-galle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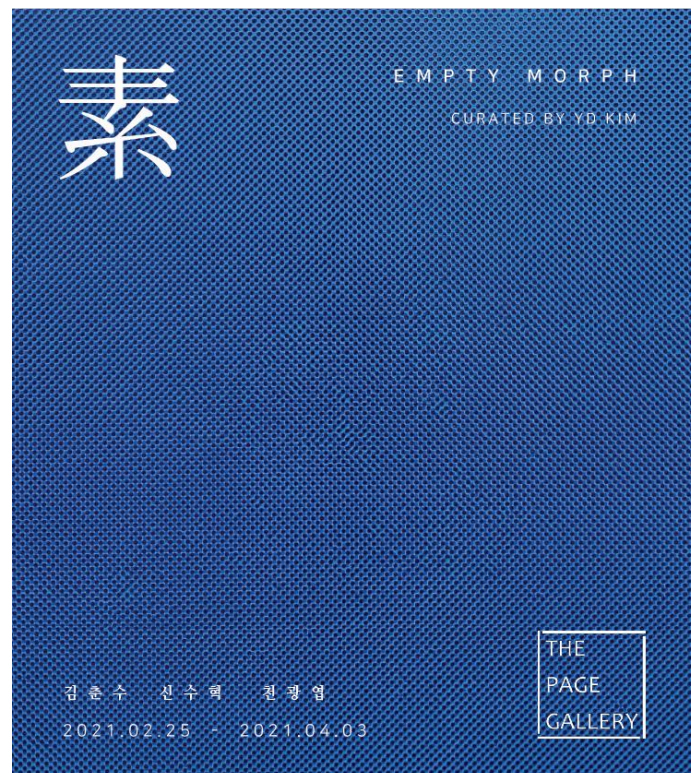
채현진 어시스턴트 thepage@thepage-gallery.com

\* 총 작품리스트와 이미지는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webhard.co.kr / ID: thepage0049 PW: 0049**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 포레 G205, 더페이지 갤러리

THE PAGE GALLERY, G205 GALLERIA FORET, 32-14 SEOULSUP 2-GIL, SEONGDONG-GU, SEOUL



[2021.02.25 - 2021.04.03]

## 素\_empty morph

더페이지갤러리는 김춘수, 신수혁, 천광엽 세 작가의 그룹전 <素\_empty morph>를 개최한다. 세 작가의 작업은 비목적성·몸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의 근원素으로 회귀하려는 공통의 과정을 추구하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김용대 전 대구시립미술관장은 “‘과정’에의 주목’이라는 측면에서, ‘삶을 기록하는 몸의 드림’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작업은) 동양미학의 수행성과 친밀하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지금껏 단색화라는 큰 범위 내에서 세대로 분류되어왔던 이들의 작업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뿜어내는 팽팽한 긴장을 엮은 것이 이번 전시이다.

(아래 개별 작가 소개글은 김용대 전 대구시립미술관장의 전시 서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직접 인용시 출처 표기 부탁드립니다.)

**김춘수(b. 1957)**는 30여년 동안 캔버스 위에 변함없이 ‘푸른 기운’만을 제공하고 있다. 작업에 보이는 것은 그저 손가락으로 찍은 푸른 점들이며 가끔씩 캔버스의 흰 바탕이 살짝 드러날 뿐이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작업을 마칠 때까지 숨쉬는 것처럼, 길을 걷는 것처럼, 그의 몸의 흐름을 느끼면서 손가락으로 물감을 찍어가고 있다. 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퍼포먼스나 해프닝을 연상할 수 있으나 그의 작업의 본질은 중성적으로 몸을 사용하면서 손에 묻힌 물감이 캔버스에 닿을 때 느끼는 그 촉감에 주목하는 것이다. 미묘한 차이의 푸른 점들은 그의 호흡으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사라진다. 그 흔적의 쌓임이 바로 김춘수의 푸른 회화이다.

**신수혁(b. 1967)**의 작업은 구조적 평면과 같다. 평면처럼 보이면서 그 안에는 많은 레이어를 가진 추상적 공간이다. 그는 평면위에 세필로 수직·수평의 교차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뉴트럴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타탄의 구조처럼 원근도 그라데이션도 없는 평면을 창조한다. 짧게 끊어치는 경쾌한 스트로크의 무한 반복은 그의 예민함을 담아내며 순간의 움직임이 머금고 있다. 이처럼 푸른·흰 물감의 교차는 “물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구조적 평면”으로 압축시키고 있다. 반복 속에서 늘 새로움을 발견하려는 그의 지향이 드러난다.

**천광엽(b. 1958)**의 작업은 물감의 층위가 만들어 낸 무위의 과정이다. 그는 바탕을 이루

고 있는 일정한 간격과 크기의 도트dots 위에 평필로 물감을 칠한다.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는 이 행위는 무심한 물감의 층위만을 남긴다. 몇 번을 칠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이 행위와 함께 깨어나는 그의 잠재의식은 다시 물감의 지층 사이에 묻히면서 우리 시야에는 오직 모노톤의 표면만이 보일 뿐이다. 그 과정과 노동에 비해 결실없는 듯한 물감의 도트, 그 무한 반복의 사막에서 천광엽은 '살아내는' 중이다.

천광엽의 9cm x 9cm x 6cm의 직육면체 입체 작업은 평면 작업의 진행 중 사포질을 해서 생기는 유화가루를 모아서 물로 침전시킨 "회화적 지층"으로, 물성을 존중하고 시간의 힘을 빌려서 완성한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다. 물질을 물성으로, 물성을 다시 물질로 환원시킨 기다림의 미학이 작업에 응축되어 있다.

"empty morph"는 허형태(虛形態)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전후 환경에서 그 출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소(素)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를 가리킨다. 김춘수, 신수혁, 천광엽의 화면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가의 사유가 쌓인 하나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보는 이는 그 온전한 과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면서 어떤 연상만 할 뿐이다. 김용대 전 관장은 "그 추상성이 만나는 곳이 바로 작업의 핵심이며 기저"라고 이야기한다. 세 작가의 반복되는 노동과 작업 과정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본디素로 돌아가려는 무위의 방법론인 것이다.

더페이지갤러리는 <素\_empty morph> 전시를 통해 수십 년간 각자의 방식으로 회화를 반복·수행해온 세 동시대 작가의 치열함이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전시는 4월 3일까지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네이버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Curated by **김용대 YD Kim**

1987년부터 2003년 삼성미술관 리움Leeum에서 수석 큐레이터로서 '한국미학에 근거한 현대미술전시'를 기획하였다. 부산시립미술관장(2004-2006)과 대구시립미술관 초대관장(2010-2012)을 역임하고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전시'를 독립적으로 큐레이팅하고 있다.

## PARTICIPATING ARTISTS

---

김 춘 수 (b. 1957)

198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198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CSULA) 대학원 졸업

1986-87 뉴욕대학교 (NYU) 대학원 수학

1996-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 주요 개인전

2020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마드리드

2019 갤러리 신라, 대구

2016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15 갤러리 데이트, 부산

Galerie Son, 베를린

2011 갤러리 누오보, 대구

2010 갤러리 이배, 부산

2009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Galerie Son, 베를린

2008 선갤러리, 서울

2006 가인갤러리, 서울

2005 성현비나, 호치민

조현화랑, 부산

## 신 수 혁 (b. 1967)

- 199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96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 2005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회화전공 졸업
- 2008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유화전공 박사취득

## 주요 개인전

- 2019 일우스페이스, 서울
- 2015 2길29갤러리, 서울
- 2014 스페이스비엠, 서울
- 2013 부티크모나코미술관, 서울
- 2011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 2009 원앤제이갤러리, 서울
- 2008 Musee F, 도쿄
- 2007 Tomos Gallery, 도쿄
- 2006 Gallery-58, 도쿄
- 2004 Gallery Gan, 도쿄
- 2001 웅 갤러리, 서울  
금산갤러리, 서울

## 천 광 업 (b. 1958)

1987 Pratt Institute 대학원 회화전공졸업 M.F.A. .뉴욕

1983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화전공졸업 M.A . 서울

1981 경희대학교 미술과졸업 B.A . 서울

## 주요 개인전

2020 FP 갤러리, 서울

2018 GOODSPACE, 대구

2016 갤러리 데이트, 부산

FP 갤러리, 서울

2010 choeunsook art & lifestyle gallery, 서울

Gallery Yamaguchi, 오사카

2009 Kunst – bau Tokyo, 도쿄

신세계백화점 본점 artwall gallery, 서울

Centum City 신세계갤러리, 부산

2008 갤러리 인, 서울

2007 가인 갤러리, 서울










2005 Gallery Yamaguchi, 오사카

2003 갤러리 인, 서울

2002 갤러리 서화, 서울

2001 갤러리 인, 서울

# ARTWORK LIST

NO	IMAGE	ARTIST	CAPTION
1		TSCHOONSU KIM	<b>2101</b> 2021, Oil on canvas 316.5 x 185.5 cm
2		TSCHOONSU KIM	<b>2005</b> 2020, Oil on canvas 145.5 x 112 cm
3		TSCHOONSU KIM	<b>1967</b> 2019, Oil on canvas 72.7 x 60.9 cm
4		SOOHYEOK SHIN	<b>No. 2001</b> 2020, Oil on canvas 197 x 291 cm
5		SOOHYEOK SHIN	<b>No. 2005</b> 2020, Oil on canvas 194 x 260 cm
6		SOOHYEOK SHIN	<b>No. 1922</b> 2019, Oil on canvas 53 x 41 cm
7		KWANGYUP CHEON	<b>omni wave no.1</b> 2017, Oil & mixed media on canvas 145 x 112 cm
8		KWANGYUP CHEON	<b>omni no.3</b> 2017, Oil & mixed media on canvas 145 x 112 cm
9		KWANGYUP CHEON	<b>omni offwhite no.4</b> 2017, Oil & mixed media on canvas 145 x 112 cm